



THE PRINCE OF WALES'S
CORPORATE LEADERS GROUP ON CLIMATE CHANGE
UNIVERSITY OF CAMBRIDGE PROGRAMM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5백여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

“의욕적이고, 확고하고, 공정한 글로벌 대책” 요구

“비즈니스에 있어 지금은 힘든 시기

...코펜하겐 회담 결과가 좋지 않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할 것”

*****9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기자회견 개최*****

****보안상 이유로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3시까지 회담 요망****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전 세계 500여 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와 위급함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의욕적이고, 확고하고, 공정한 글로벌 대책”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코펜하겐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화요일 오전 8시, 일부 비즈니스 리더들은 확실한 대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뉴욕 시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석단:

- Suntech Power(중국) 회장 겸 대표이사 Zhengrong Shi 박사
- British Airways의 CEO Willie Walsh
- International Investors의 CEO 겸 운송 기업 FESCO 선사(러시아) 회장 Sergey Generalov
- 재생 에너지 업체 Acciona (스페인)의 CEO 겸 회장 Jose Manuel Entrecanales Doemcq
- ABSA 은행(남아프리카)의 CEO Maria Ramos
- 화장품 회사 Natura (브라질)의 공동이사장 겸 공동설립자 Guilherme Leal
- Royal Dutch Shell plc 총괄경영/정부관련 책임자 Roxanne Decyk 여사
- Oxfam 대표 Barbara Stocking (대영제국 훈장(CBE) 수상자)
- WWF Global Climate Initiative(세계 기후 선제권) 리더 Kim Carstensen
-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업체 SAP(독일) 중역 Jim Hagemann Snabe 씨
- 캘리포니아 주 교원 연금(CalSTRS) 대표이사 Jack Ehnes 씨
- 케임브리지 대학 산하 지속가능성 리더십 프로그램(발안 주도 기구)에서 운영하는 “The Prince of Wales’s Corporate Leaders Group on Climate Change”의 공동이사이자 기자회견 의장인 Craig Bennett

Riverview Room, 28th Floor, East Tower, Millennium UN Plaza Hotel New York, One United Nations Plaza, 44th Street, Between 1st & 2nd Ave, New York, NY 10017.

오전 8시 - 아침식사 제공

동부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 주소:

Genevieve.Maul@admin.cam.ac.uk로 회담 요망

AN INITIATIVE DEVELOPED BY:



보도자료

2009년 9월 22일 화요일 미국 동부시간으로 00:01시 엠바고

전 세계 500여 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오늘 아침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와 위급함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의욕적이고, 확고하고, 공정한 글로벌 대책”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코펜하겐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열릴 UN 기후변화 회담에서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코펜하겐 성명*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오늘 늦게 열릴 기후변화에 대한 UN 정상회담과 때를 맞추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공표됩니다. *코펜하겐 성명* 사본은 오늘 점심때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전해질 것이며, 회담에 참석한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정부의 수장들에게 배포될 것입니다[1].

*코펜하겐 성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들 및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에서 중소기업(SMEs)과 광범위한 범주의 비즈니스 업종까지 모두 포함하여 세계 50여 개국 소재 기업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포함)의 지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두 페이지만 지나면 성명에서는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UN 기후 체계를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착수하고 협약 형태에 대한 점진적인 글로벌 합의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copenhagencommunique.com에는 지금까지 성명에 서명한 회사들의 전체 목록과 이를 지지하는 해당 회사 비즈니스 리더들의 말을 비롯하여 19개국 언어로 번역된 코펜하겐 성명 전문이 나와있습니다.

코펜하겐 성명은 케임브리지 대학 산하 지속가능성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The Prince of Wales’s Corporate Leaders’ Group on Climate Change”에서 내놓은 발안입니다[2]. 본 발안을 지지하는 글로벌 파트너는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연합 및 발안과 함께 The Climate Group, The UN Global Compact, WWF-International 등입니다[3].

성명에서 5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있어서 지금은 힘들고 불안한 시기이다. 코펜하겐 UN 기후변화 회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불확실성과 자신감 손상만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후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이라고 경고하면서 “고탄소 미래를 지양하고 저탄소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방식으로 불경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과학에 근거한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유되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지지하는 합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 세계 배출량 상승은 멈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10년 이내에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해야 하고, 2050년까지 50-85%까지 절감돼야 한다는 것을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선진국들에는 “즉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배출량 감소에 대한 의무”를 짊어질 것, “저탄소 성장은 달성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또한, 개발도상국에는 독자적인 배출량 감소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개발중진국들에는 202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의무의 채택을 요구합니다.

AN INITIATIVE DEVELOPED BY:



기업들은 열대 삼림국들이 삼림 벌채를 중지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기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즉각적인 한시적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종합 정책에 찬성합니다. 열대우림의 지속적인 파괴는 연간 온실 가스 배출량의 5분의 1까지 차지합니다[4].

보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를 경감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배출량을 감소하고 이미 겪고 있을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연간 1-2천억 US 달러의 필요성과 다양한 추정이 제기되는 기후 협상에서 가장 이론이 분분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5]. 비즈니스 리더들은 *코펜하겐 성명*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있어서도 전이 비용은 처리가 용이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기업들은 “기후 체계가 견고할수록 비즈니스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덧붙여 “더 이상의 지연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성명을 마칩니다.

이번 주에 뉴욕에서 있을 기자회견에 참석할 케임브리지 대학 산하 지속가능성 리더십 프로그램(발안 주도 기구)에서 운영하는 “The Prince of Wales’s Corporate Leaders Group on Climate Change”의 공동이사인 Craig Bennett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펜하겐 성명을 위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 소속 지원 업체들의 범주는 정말 광범위했습니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들과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에서 중소기업까지 모든 업종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의욕적이고, 확고하고, 공정한 글로벌 대책의 기본 형태에 대해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각국 정부의 동의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야겠지요?”

성명을 지지하는 미국 소재 기업은 AECOM, Cisco, Coca-Cola, CSC, eBay Inc., Gap Inc., General Electric, HP, Johnson & Johnson, Johnson Controls, PepsiCo, Procter & Gamble, SC Johnson & Son, Starbucks Coffee Company, SunGard, Symantec, Thomson Reuters,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Yahoo ! 등입니다. CalSTRS(미국 최대 교원 연금)도 본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캐나다 기업은 Bombardier, Cascades Inc., Domtar Corporation, Fairmont Hotels & Resorts, Four Seasons Hotels and Resorts,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등입니다.

유럽 소재 기업은 Adidas, Allianz, Alstom, Air France-KLM, Anglo-American, Arup, Barclays, Banco Santander, BASF, British Airways, BT, BP, Carrefour, Deutsche Telekom, Diageo, The Eczacibasi Group, Enel, EDF Energy, Endesa, Ferrovial, HSBC, J Sainsbury's, Lloyds of London, Marks and Spencer, Nestlé, Philips, Rio Tinto,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Reckitt Benckiser, Repsol, Rolls-Royce, SAP, Siemens, Skanska, Shell, Swiss Re, Telefonica, Tesco, Unilever, Virgin Group 등입니다. 러시아 기업 FESCO, Industrial Investors Group, RUSAL도 서명하였습니다.

호주 소재 기업은 Insurance Australia Group, Lend Lease Coporation Ltd, Linfox, Macquarie Group Limited,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Telstra Corporation Limited, Westpac Group, Woolworths Limited 등입니다.

남미 소재 기업은 Arcor, Banco Galicia, Braskem SA, CEMEX, Copagaz Distribuidora de Gás, EDP - Energias do Brasil, Natura Cosméticos, O Boticário, Vale 등입니다.

아시아에서는 Bank of Beijing, Chervon Ltd, Dongguan Wonderful Ceramic Company, Hangzhou GreatStar Industrial Co., Ltd, Shanghai Electric, Suntech 등 많은 중국 기업들과 홍콩에 소재한

AN INITIATIVE DEVELOPED BY:



Cathay Pacific Airways Ltd, Swire Pacific Limited, The Bank of East Asia에서 *코펜하겐 성명*에 서명하였습니다.

인도 소재 기업은 Technologies, ITC, Asian Fabrics and Ramco International 등입니다. 일본 기업 Ricoh와 Nippon Insurance는 사우디 소재 Rezayat Group과 한국 소재 웅진그룹과 함께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기업 ABSA Group, Nedbank Ltd, Pick n Pay, Santam, Sanlam Ltd, Sappi Limited이 서명하였습니다.

서명 기업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 www.copenhagencommunique.com 에 나와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코펜하겐 성명*에 동참할 각국의 기업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본 발안을 알게 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서명 기업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The Prince of Wales’s Corporate Leaders Group on Climate Change”의 대표자들과 성명에 서명한 많은 CEO들은 이번 주에 뉴욕에서 열릴 국제연합 기후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입니다.

-끝-

코펜하겐 성명에 서명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말:

미국 소재 Nike Inc. 회장 Mark Parker씨의 말:

“Nike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강력한 환경 조치와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기후 및 지속가능성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효과적인 국제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6대륙에 걸친 결의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Virgin Group 사장 겸 설립자 Richard Branson 경의 말:

“저탄소 경제를 창출하려면 비즈니스 및 정치 지도자들이 전 세계인에 대한 책임감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비즈니스 리더인 저는 제가 추진하는 일이 정치적인 계획과 견고한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만 저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과감할수록 저도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여를 하도록 고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6십억 세계인들과 함께 우리의 지도자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보여줄 용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British Airways 대표 Willie Walsh씨의 말:

“우리는 코펜하겐 회담은 확연히 다를 것이며, 특히 항공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대처에 큰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British Airways를 대표하여 성명에 서명하였습니다.”

영국 Shell 회장이자 Corporate Leaders’ Group 회원인 James Smith 씨의 말: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코펜하겐에서 각국은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cap-and-trade)와 저탄소 기술에 근거한 진정한 글로벌 탄소 시장을 위한 전례가 없는 공통의 목적을 찾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 INITIATIVE DEVELOPED BY:



UNIVERSITY OF
CAMBRIDGE

PROGRAMM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중국 제품 제조업체 Chervon Ltd의 CEO 겸 회장 Longqian Pan 씨의 말:

“우리는 책임감 있는 제조업체로서 우리 회사가 환경에 끼칠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제조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 방법을 하나의 비즈니스로서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의 하나인 “옥상녹화” 조정은 우리 회사가 에너지 니즈와 비용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환경과 우리 비즈니스 모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일본 소재 Ricoh Company, Ltd.의 CEO인 Shiro Kondo 씨의 말:

“우리는 2050년까지 인간의 지혜와 전 세계인의 합심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05년 Ricoh는 우리의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2050년 환경 장기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 3월, 우리가 설정한 “중장기 감소 대상”에 따라 2000년에 비교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7.5% 줄이고 2020년까지 전 제품 수명 주기에서 30%를 감소할 것입니다.”

스웨덴 소재 건축 회사 Skanska의 CEO 겸 사장이자 Corporate Leaders' Group의 회원인 Johan Karlström 씨의 말:

“세계 건축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의 하나인 Skanska는 EU Corporate Leaders Group이 설립됐을 때부터 이 그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EU Corporate Leaders Group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막는 사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업종에 속하는 주도 기업들의 포부를 응집 및 통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Skanska는 코펜하겐 성명서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적 사고를 하는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브라질 소재 광산업체 Vale SA의 사장 겸 CEO인 Roger Agnelli 씨의 말:

“저는 세계는 시장 주도형 경제에서 ‘녹색’ 저탄소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Vale을 대표하여 성명서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집트 소재 Orascom Telecom Holding 회장 Naguib Sawiris 씨의 말: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하고 절박한 경제 문제입니다. 비즈니스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세계로 나아가는 변환기로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명서 서명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소재 종이 및 펄프 회사 Sappi Limited의 대표이사 Ralph Boëttger 씨의 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 커뮤니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의존하는 자연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급력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Sappi는 재생 자원 회사로서 저탄소 경제로 변환하는 과도기 형성에 중점을 두는 글로벌 솔루션에 참여할 기회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Telecom Italia SpA 의 대표이사이자 Corporate Leaders' Group 회원인 Franco Bernabè 씨의 말:

“Telecom Italia는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탄소 영향력을 줄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도적인 텔레콤 회사로서 다른 비즈니스 분야에서

AN INITIATIVE DEVELOPED BY:



ICT(정보통신기술) 솔루션과 제품 및 서비스의 비물질화(영상회의, 지능형 계량기(**smart metering**), 인포 모빌리티, 모바일과 고정 광대역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GHG(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우리 업계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후변화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합의와 공동 대책을 통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명에 서명한 비즈니스 리더들이 다음 UN 기후변화 회담에서 의욕적이고, 확고하고, 공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인도 소재 의류 제조업체 Devgiri Exports의 CEO인 Avinash Rai 씨의 말:

“우리 회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명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이 분야에서 최신 정보와 뉴스도 얻는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National Australia Bank의 CEO인 Cameron Clyne 씨의 말:

“National Australia Bank Group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 및 지역적 대응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펜하겐 성명에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회사의 탄소량을 줄이고, 우리 직원들, 고객들, 공급망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저탄소 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자본 제공은 우리 대응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World Wide Views와 같은 발안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현재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 중의 하나에 대해 자국민의 일상적인 관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1] 2009년 9월 22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소집합니다. 올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인 UN 기후변화 회담에 앞서 기후 협상을 진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뉴욕 UN 본부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정부의 수장들이 집결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un.org/wcm/content/site/climatechange/lang/en/pages/2009summit>

[2] “The Prince of Wales’s Corporate Leaders Group on Climate Change(영국과 EU 그룹들로 구성)”는 케임브리지 대학 산하 지속가능성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개발했습니다.

유럽연합 그룹 회원: Acciona, AECOM, Allianz SE, Anglian Water Group, Axa Insurance, BAA, Barilla, BskyB, Cemex, Deutsche Telekom AG, Enel SpA, F&C Asset Management, Fortis Bank Nederland, John Lewis Partnership, Johnson Matthey, Kingfisher Group, Lloyds Banking Group, Philips, Reckitt Benckiser, Royal Dutch Shell, Skai Media, Skanska AB, Standard Chartered Bank, Sun Microsystems, Telecom Italia, Tesco, Thames Water, Unilever, Vodafone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copenhagencommunique.com

AN INITIATIVE DEVELOPED BY:



[3] 그 외 파트너에는 Business in the Community (The Prince's May Day Network), 캐나다 사회적 책임 비즈니스,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홍콩 소재), 칠레 대학, FGV (Centro de Estudos em Sustentabilidade da EAESP), Fundacion Entorno, 2 Degrees (기후 보호를 위한 독일 CEO), 국제 비즈니스 리더 포럼(IBLF), UN 파트너쉽 오피스 등이 있습니다.

[4] 성명에 있는 열대우림에 관한 단락은 The Prince's Rainforest Project에서 제작한 2009년 3월 일자 리포트 “열대 삼림을 위한 긴급 종합 정책”에서 제시된 접근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rainforestsos.org/>를 참고하십시오.

[5]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배출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2030년까지 연간 1천 7백6십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unfccc.int/files/cooperation_and_support/financial_mechanism/application/pdf/background_paper.pdf

한편 UN 개발 프로그램은 OECD 국가들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위한 진척 상황을 보호하고 인간개발에 있어 2015년 이후의 반전을 막기 위해, 부자에서 가난으로 전환하여 2016년까지 적응에 필요한 ‘새롭고도 추가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 적어도 8백6십억 미국 달러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웹사이트: <http://hdr.undp.org/en/reports/global/hdr2007-2008/>

상세 문의용 연락처:

Genevieve Maul
Office of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Cambridge
전화: +44 (0) 1223 332300
휴대폰: +44 (0) 7774 017464
이메일: gm349@admin.cam.ac.uk